

小栢 安達三의 교유와 그 의미

김새미오*

- I. 들어가며
- II. 소백 안달삼의 삶과 『小栢處士遺稿』
- III. 소백 안달삼과 노사 기정진
- IV. 소백 안달삼과 면암 최익현
- V.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요약

본고는 조선후기 제주 문인인 小栢 安達三(1837~1886)의 삶과 교유관계를 통해 그의 학술적 좌표를 살펴본 글이다. 본고에서는 안달삼이 학계에 다소 생소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그는 제주도 조천 출신이었는데, 조천은 당시 제주도를 대표하는 포구여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그의 집안 분위기 역시 본토의 정보에 밝았고, 유가적 소양을 갖춘 문중에서 성장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사항이었다.

이어서 『소백처사유고』를 점검하였고, 문집에 보이는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소백 안달삼의 학문적 위치를 추적하였다. 교유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노사 기정진과 면암 최익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상으로 안달삼은 모두 3차례 노사 기정진을 만났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노사 주변 문인과 제자들을 만나 교유하였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아들인 부해 안병택이 동행하여 노사 기정진을 만난다. 이렇게 스승을 찾아 바

*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 전임연구원

다를 건너는 경우는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안달삼은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 유배 시에 처음 만났다. 최익현은 당시 안달삼이 가지고 있던 기정진의 글을 보고, 이에 공감을 가졌고, 제주도 해배 후에 기정진을 찾아가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노사학과와 화서학과와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교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두 학과간의 교류의 시작점에 안달삼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학술상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었다. 또 그 공간이 제주였다는 것 역시 매우 독특하면서도 유의미한 성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과는 안달삼의 아들인 안병택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제고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소백 안달삼, 소백처사유고, 부해 안병택, 노사 기정진, 면암 최익현, 노사학과, 화서학과.

I. 들어가며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후기 제주 문인인 小栢 安達三(1837~1886)의 삶과 교유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백 안달삼은 학계에 다소 생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백 안달삼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다. 다만 1편의 논문에서 소백 안달삼이란 이름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소백 안달삼의 존재는 김새미오의 “구한말 제주 문인 浮海 安秉宅의 삶과 교섭”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글은 부해 안병택에 논의의 중심에 놓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인 소백 안달삼을 언급하였다.¹⁾ 따라서 소백 안달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안달삼의 문집인 『小栢處士遺稿』²⁾에 대해서도 소개하지 못했다.

1) 김새미오, 구한말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한국한문화연구(53), 한국한문화회, 2014, pp.249~274.

이 외에 부해 안병택에 대해서는 부영근(2010), 김새미오(2015)의 연구가 있다.

2) 『小栢處士遺稿』는 안달삼의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교유한 인물들에게

그의 아들인 부해 안병택은 “蘆沙 奇正鎮 - 松沙 奇宇萬”의 학맥을 계승한 학자로 평가되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출신인 부해 안병택이 어떻게 당시 절해도고였던 제주를 떠나 노사학맥의 적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그 관심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부해 안병택의 아버지인 소백 안달삼이다. 소백 안달삼은 노사 기정진, 면암 최익현과 같은 인물과의 교유가 있었고, 당시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사학맥의 적전이자 제주도학의 泰斗라고 평가받는 안병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아무래도 학계에 알려진 인물이 아닌 만큼, 소백 안달삼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어 소백 안달삼의 문집인 『소백처사유고』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의 문집은 적은 분량이지만 아직 학계에 소개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백 안달삼의 교유관계와 문집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교유관계를 통해 그의 학술적 위치와 역할을 확인할 것이며, 문집의 내용상 특징과 의미도 궁구할 것이다.

이런 제반과정을 통해 소백 안달삼의 학술적 위치와 그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식인과 본토지식인 사이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I. 소백 안달삼의 삶과 『소백처사유고』

소백 안달삼은 조선 고종 때의 제주 문사이다. 그의 본관 竹山, 자는 行五, 호는 小栢이다.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가 그의 고향이다. 조천은 제

받은 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타인이 받은 글을 이처럼 책의 제목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표지의 제목이 『소백처사유고』이고, 필자가 따로 제목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주도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조천포구가 있었다. 조선시대 조천포는 그 옆에 있던 화북포와 함께 당시 제주를 대표하는 포구였고, 본토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들이 늘 정박하는 곳이었다. 즉, 당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표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최신 문물을 직접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안달삼 집안이 대대로 제주도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노사 기정진의 글에 따르면, 그의 入島祖는 安禮千으로, 안달삼에게는 6세조가 된다. 안례천은 글방 선생님이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주에 정착하게 된다. 현조부는 時敏, 고조부는 致完, 증조부는 景老, 조부는 彌連(1765-1830), 부친은 鍾秀(1801-1870)였다. 그의 어머니는 김해김씨 盛弼의 따님이었다.³⁾

안달삼의 아버지인 安鍾秀는 배를 타고 서울을 왕래하곤 했는데, 한번은 본토를 가다가 일본으로 표류되기도 하였다.⁴⁾ 표류는 당시 목숨이 오가는 큰 사건이었지만,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제주도인 경우 타 지역의 문물을 받아드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바다였다. 바다를 건너오는 목사 또는 유배인들의 경우, 본토의 문물과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었다. 제주사람들은 이를 통해 본토의 정보는 물론 문화까지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달삼의 고향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조천포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입도조가 글방선생님으로 제주에 들어왔던 만큼 학문에 대한 집안의 관심 역시 특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종수가 아들인 안달삼에게 경서와 역사서등의 책을 읽혔던 것이나,⁵⁾ 당시 제주의 사표였던

3) 『蘆沙先生文集』 권27, 「安君墓表」: 君諱鍾秀, 字乃元. 安氏本竹山人, 簪組相承. 至諱崇壽官縣監, 諱愼官參奉. 君十世若九世, 五世祖禮千, 以塾師入耽羅, 仍居焉. 曰時敏, 曰致完, 曰景老, 曰彌連, 高曾祖父諱也. 妣金海金氏盛弼女.

4) 『蘆沙先生文集』 권27, 「安君墓表」: 君嘗欲入漢師, 海上遇颶, 漂入日本而還, 自此不喜乘舟.

5) 『蘆沙先生文集』 권27, 「安君墓表」: 有子曰達三, 以君之教, 頗涉經史諸子. 過海一年一度, 從吾遊者五六年, 以故知有君, 亦嘗一書通問.

梅溪 李漢雨(1823-1881)를 배우게 했던 것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안종수 역시 안달삼을 통해 蘆沙 奇正鎭(1798-1879)과도 通問을 하기도 하였다. 기정진은 안종수에 대해 부모상을 잘 치르고, 소강절의 三品說로 후생을 격려하고, 藍田鄉約에 따라 마을의 여러 의견을 처리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다.⁶⁾ 이를 보면 안달삼의 아버지인 안종수는 당시 유교사회의 질서를 따르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종수는 1남5녀를 두었는데, 한 명의 아들이 바로 안달삼이다. 소백 안달삼은 신촌리 梅溪 李漢雨(1823-1881)⁷⁾에게 공부를 시작한다. 신촌리는 화북과 조천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한우는 제주에 유배왔던 秋史 金正喜(1786-1856)를 찾아가 배운 바 있고,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글이 뛰어나 활발한 훈학활동을 펼쳐 당시 제주의 師表로 일컬어졌다. 대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울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한우는 1862년 강제검의 난⁸⁾때 창의문을 돌려, 난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1873년에는 당시 제주에 유배왔었던 勉庵 崔益鉉(1833~1906)과도 만난 바 있다. 후에 제주목사로 왔던 梁憲洙(1816~1888)는 강제검 난때의 매계 이한우의 행적을 치하하였는데, 양헌수는 화서학과의 일원이었다.

매계 이한우의 제자로는 康祐鎭(1829~1871), 金潤柄, 愼哉芝(1827~1869), 金祥任, 金膺銓(1833~19115), 金膺平(1841~1918), 金羲正(1844~1925), 李啓徵(1840~1914), 安達三 등의 인물이 있다. 康祐鎭은 고종대 정의군수와 대정군수를 지냈고, 愼哉芝는 참관을 지낸 신상흠의 아들로 通津부사를 역임하면서 양헌수를 따라 병인양요에 참전한 바 있다. 金膺

6) 『蘆沙先生文集』 권27, 「安君墓表」: 聞其平生, 奉先孝居喪毀, 性度溫而嚴, 不可干以非義. 對後生, 每以邵堯夫三品之說激厲之. 處鄉黨言議, 常依藍田鄉約. 此皆達三所告, 儘不誣其親.

7) 매계 이한우에 대해서는 김새미오(2007), 김치완(2012)의 연구가 참조된다.

8) 강제검의 난: 일명 제주 임술민란으로 관료들의 경제적 수탈과 삼남 지방의 임술민란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 그 주동자가 강제검과 김홍채였다. 이들은 향리와 아전들의 수탈에 3차례 일어났고, 제주목까지 점령하기도 했다. 주동자가 강제검이었기에 흔히들 ‘강제검의 난’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서는 『濟州牧按覈狀啓膾錄』(고려대학교소장)에 자세히 다.

銓은 항일독립운동가 金明植(1890~1943)의 조부이며, 후에 橘會의 일원으로 제주문학을 이끈 바 있다.⁹⁾ 金膺平은 고종 때 정의현감, 명월만호 등을 지냈다. 이들은 당시 제주 조천지역 김해김씨로 제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집안의 일원이었다. 金羲正은 유배왔던 최익현에게 수학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희정은 당시 詩學에 있어 제주도 최고라는 평가가 있고, 문집도 전하고 있다. 李啓徵과 安達三은 전라도 장성을 찾아가 노사 기정진의 사상을 익혔다.

안달삼의 스승인 매계 이한우의 문하는 크게 안달삼과 이계징으로 이어지는 노사학맥, 김희정으로 이어지는 화서학맥, 그리고 제주에서 관리를 지냈던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 근대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거주했던 곳은 모두 제주도 화북, 신촌, 조천 지역으로 제주 동부지역에 해당하며, 포구가 가까이 있어 바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한우의 문하에 있었던 안달삼은 분명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교류는 그의 아들 안병택에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¹⁰⁾

이한우가 최익현을 만났을 때, 소백 안달삼 역시 자리를 같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백 안달삼은 자신이 기정진에게 배운 내용을 최익현에게 보여주었고, 최익현은 그 내용에 교감을 가졌다. 안달삼과 최익현의 만남은 노사학맥과 화서학맥 교류의 첫 만남이며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절해고도의 유배지였던 제주도였다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최익현은 제주 해배 후에 장성에 들러 노사 기정진을 찾아가 만나게 되고, 이들 학맥은 일제 강점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달삼은 30세였던 1867년에 70세였던 노사 기정진을 처음 만난다. 이후 노사 기정진은 물론 그 주변 문인들과 바다를 건너 교류관계를 유지한다. 과거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만다.¹¹⁾

9) 굴희에 대해서는 김새미오(2015)의 연구가 참조된다.

김명식에 대해서는 허호준(2011), 김동윤(2013)의 연구가 참조된다. 김명식은 부해 안병택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한문에 있어서도 탁월한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10) 부해 안병택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김새미오(2014)의 연구가 참조된다.

1883년(고종20) 10월, 제주관관 高景嘯(1839-1897)이 시험관이 되어 유생들을 대상으로 陞補初試를 실시했는데, 이때 안달삼은 시로, 홍종익은 부로 김용성은 강으로 합격되어 이를 규장각에 보고되었다. 크지는 않지만 안달삼의 학문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후에 고경준의 비문을 松沙 奇字萬(1846-1916)이 짓게 되는데, 이는 안병택이 고경준의 행장을 지어 스승이었던 기우만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었다.¹²⁾ 당시 제주목사 李奎遠(1833-1901)은 안달삼이 죽은 후인 1892년에, 안달삼의 품행과 도의로 조정에 천거하려 했지만, 巨老 마을의 玄商休가 이를 반대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소백 안달삼의 부인은 파평 尹麟孝의 딸이며,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부해 안병택이며, 세 딸은 각각 邊德潤, 李錫保, 金基祖에게 시집간다. 부해 안병택은 바다를 건너 전라도에 살았지만, 누이들은 모두 계속 제주도에 거주하였다. 이런 관계로 인해 부해 안병택은 전라도에 거주하면서도 제주도의 소식 등을 계속 알 수 있었고, 제주도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도에 노사학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心齋 金錫翼(1885-1956)과 윤정복은 소백 안달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돌아보았다.

근세의 안소백 선생은 호걸스러운 선비이다. 과거공부에도 스스로 뛰어났고 북쪽으로 가서 선생을 따라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義理의 說을 말하며 후진을 이끌었으니 그 공적이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傳에서 이른바 ‘비록 문왕이 없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향리에서 행의가 뛰어난을 들어 공을 천거하여 조정에 알려졌는데 지방사람 현상휴에게 막혀버렸으니, 애석한 일이다.¹³⁾

11) 『소백처사유고』 49면: 李喜豊_黃峙下送安斯文行五落第歸耽羅.

안달삼이 과거를 언제 어떻게 치렀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집 내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보면, 생애 후반의 일로 짐작된다.

12) 『松沙集』 권37. 「濟州通判高公墓碣銘」: 命瑀以吾友安君秉宅所草狀求爲銘.

13) 『心齋集』「破閑錄上」: 近世安小栢先生豪傑之士也. 能自拔於科舉科臼, 從師北學, 歸以義理之說, 倡道後進, 其功大矣. 傳所謂雖無文王可興, 詎不信. 然鄉里舉公行誼, 將達于朝, 爲土人商休所沮, 惜哉.

아!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은 예로부터 힘든 것이다. 선조의 무덤, 물려준 집과 밭이 여기 있고, 친척·인척·친구들이 여기 있으니, 밖에서 벼슬을 하면서 매우 부귀한 경우나 안에서 굶주림에 극도로 시달린 경우가 아니면 하루라도 그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 그러한 인지상정인 것이다. 공은 대대로 탐라에 살면서 30년을 분연히 호남의 노사 기정진선생에게서 도를 강론하며 제자의 예를 갖추었고, 그 아들에게 따라 배우게 하였다. 또 가족들과 선생이 계신 곳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 살려고 하였지만, 병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다. 유언으로 아들에게 수 백년의 고향을 떠나 수 천리 험한 바다를 넘어 장성에 살게 하였으니, 도를 믿는 것이 돈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는가?¹⁴⁾

첫 번째 인용문은 심재 김석익의 「破閑錄·上」에 있는 문장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重軒遺稿』의 「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의 일부이다.

心齋 金錫翼은 부해 안병택의 고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¹⁵⁾ 인용문의 ‘복쪽의 스승’은 노사 기정진을 말한다. ‘義理의 說로 후진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소백 안달삼이 노사 기정진에게 배운 것을 제주도에 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김석익은 「耽羅人物考」에서 “기노사의 문인으로 스승을 좇아 공부하여 도덕과 올바른 행동으로 칭찬을 받았고, 도덕과 행의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였다.”¹⁶⁾라고 따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김석익은 당시 황폐했던 제주도 학술상황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아나선 소백 안달삼의 학문의지에 주목하였다.

「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에서 윤정복은 제주에 살면서 노사 기정진에게서 배우고, 아들인 부해 안병택까지 따라 배우게 했음을 강조했다.

14) 『重軒遺稿』, 「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 噫! 人之離鄉從, 古爲難耳. 先墓先廬先田在于斯, 親族媿戚故舊在于斯, 非有仕宦富貴之極, 榮于外, 且飢寒困苦之極, 迫于內者, 不欲一日離其鄉, 人之常情, 莫不皆然也. 公世居耽羅, 聞蘆沙奇先生講道于湖南, 奮然而來, 三十年執弟子禮, 使其子, 從而學焉. 且使其家族田宅, 皆移于先生之居近爲計. 病未遂也, 則遺言于子, 使之離數百年故土, 涉數千里險海, 而來居于長城, 如非信道篤, 安能有此?

15) 심재 김석익에 관해서는 김세미오(2015)의 연구가 참조된다.

16) 『심재집』, 「탐라인물고」, 安達三 조.

『심재집』, 「탐라기년」, 권4 : 壬辰 二十九年 [清 光緒十八年] ○ 舉故處士安達三行誼. 達三, 本州人也. 號小栢, 蘆沙奇正鎮門人. 道德行誼, 爲時所推.

이는 노사학맥의 적전이라는 안병택에 방점을 두고 소백 안달삼을 바라 보았고, 이는 그가 “안달삼-안병택-안동술”¹⁷⁾의 묘지명 등을 차례로 지었기 때문이다.

소백 안달삼의 삶은 심재 김석익이 『맹자』에서 인용한 “豪傑之士”라는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 학문적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를 떠나 호남지역을 오가면서 노사 기정진을 배운 것이나, 후에 아들인 안병택에게 과감하게 제주를 떠나 노사학맥을 배우게 한 그의 행적 등이 그렇다.

그의 문집으로는 『소백처사유고』가 집안에서 전하고 있다. 이 책을 꼼꼼히 살펴다 보면 소백 안달삼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안달삼이 받은 시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정갈한 해서체로 정리되어 있고, 필체는 변함없다. 필체로 보자면, 한 사람이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정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면에서 “小栢遺事”라고 한 것과 집안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보면, 그의 아들인 부해 안병택이나 손자인 안동술이 정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안달삼의 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정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집분량은 50면 정도이고, 문체별로 정리되어 있다. 문체 내에서는 작가별로 편집했고, 그 안에서는 시간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문집의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백처사유고』 전체구성〉

면수	인물	문체	분량	시 기
1-6	奇正鎮	간찰	11편	1868, 1868, 1870, 1870, 1871, 1871, 1871, 1872, 1873, 1875, 1875.
6-7	奇陽衍	간찰	1편	1871.
7-11	奇亮衍	간찰	5편	1868, 1882, 1871, 1883, 1884.
11-14	崔益鉉	간찰	3편	1875, 1882, 1883.
14-15	曹毅坤	간찰	1편	1880.
15-16	奇弘衍	간찰	1편	1883.
16-17	安重燮	간찰	1편	1871.
17-20	奇宇蕃	간찰	4편	1868, (연대미상), 1868, 1871, 1877.

17) 『重軒遺稿』, 『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 『浮海先生安公墓碣銘并序』; 『秀士竹山安公墓碣銘并序』.

21	奇正鎭	送序	2편	1867, 1868.
22-24	奇正鎭	送序	1편	1877.
24-25	奇正鎭	記文	1편	1878.
25-33	奇正鎭	문답록	10편	(연대미상).
33-35	安重燮	送序	1편	1868.
35-37	奇字萬	說	1편	1875.
37-39	金錫龜	送序	1편	1879.
39-41	金僖錫	시	3수	1882, (연대미상), 1871.
41	姜寅會	시	3수	1868.
41-43	梁圭煥	시	4수	1868, (연대미상), (연대미상), (연대미상).
43	曹性家	시	1수	1885.
43	曹毅坤	시	1수	(연대미상).
43-44	奇麒鎭	시	1수	(연대미상).
44	奇字蕃	시	1수	1868.
45	黃山 錫秘	시	1수	(연대미상).
45	奇宰立夫	시	1수	(연대미상).
45	金敬閔	시	1수	1879.
46	金漢驥樂三	시	1수	(연대미상).
46	許煦	시	1수	(연대미상).
46	安鳳淵	시	1수	(연대미상).
47	朱陽鴻	시	1수	(연대미상)
47-48	奇字萬	시	2수	1868.
48	奇○衍德初	시	1수	(연대미상).
49	許檉	시	1수	(연대미상).
49	李喜豊	시	1수	(연대미상).
50	(작자미상)	시	1수	한라산

먼저 그의 문집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총 14명이다. 위의 인물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단연 蘆沙 奇正鎭과 勉庵 崔益鉉이다. 이들 이외에 다른 여러 인물들은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작품을 읽어보면 대체로 노사학맥의 학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문집 내에서 연대별로 작품 분포를 보면, 1867년, 1868년, 1879년에 몰려있는데, 이 때는 안달삼이 기정진을 만나러 간 때였다.

Ⅲ. 소백 안달삼과 노사 기정진

소백 안달삼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는 인물은 노사 기정진이다. 소백 안달삼이 노사학맥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노사 기정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문점은 안달삼이 당시 절해고도였던 제주에서 노사 기정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집안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안중섭의 「송담라종인달삼소서」에서 “안달삼이 종가의 문헌을 확인하기 위해 본토를 돌아다녔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기노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¹⁸⁾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1868년의 기록이며, 안달삼이 집안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 기정진을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안달삼은 본관이 竹山인데,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지역으로, 노사 기정진이 있던 장성과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었다. 기정진 역시 「竹山安氏族譜序」라는 서문을 지은 바 있다.¹⁹⁾

두 번째는 윤정복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중암유고』·「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에서 “공은 대대로 탐라에 살면서 30년을 분연히 노사 기정진 선생에게서 도를 강론하며 제자의 예를 갖추었고, 그 아들에게 따라 배우게 하였다.”²⁰⁾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안달삼은 기정진의 명성이 제주에 전해졌고, 그 명성을 따라 노사 기정진을 배웠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안달삼의 거주지가 제주에서 많은 정보가 오갔던 조천지역이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아버지 안중수의 존재이다. 전술했듯 소백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본토를 종종 왕래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표류한 바 있다. 또한 『소백처사유고』에는 흑산도까지 다녀왔던 기록이 남아있다.²¹⁾ 통상

18) 『소백처사유고』 16면.

19) 『蘆沙集先生文集』 권17, 「竹山安氏族譜序」.

20) 『重軒遺稿』, 「小栢堂處士竹山安公墓表」: 公世居耽羅, 聞蘆沙奇先生講道于湖南, 奮然而來, 三十年執弟子禮, 使其子從而學焉.

21) 『소백처사유고』 20면.

안달삼의 아버지인 안중수가 흑산도까지 가게 된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추정하자

제주에서 배를 타면 전라도 지역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노사 기정진의 명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스승인 매계 이한우를 통해서 기정진의 명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스승인 매계 이한우 역시 대과를 보기위해 한양을 왕래한 바 있다. 당시 제주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가려면 반드시 전라도 지역을 지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노사 기정진의 명성을 들었을 수 있다. 실제로 이한우의 경우는 전라도 인물은 물론 본토의 인물들과의 교류가 확인된다.

위의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해보면, 노사 기정진의 명성, 집안의 내력을 확인하고자하는 안달삼의 노력, 안중수·이한우의 본토 왕래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노사 기정진과의 기이한 인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백처사유고』의 내용으로 볼 때 안달삼이 노사를 직접 만난 것은 3차례가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차수	연도	근거	문집
1	1867년(정묘)	奇正鑣_贈安君行五小序	蘆沙先生文集 卷19.
2	1868년(무진)	奇正鑣_送安君達三歸耽羅序	蘆沙先生文集 卷19.
		安重燮_送耽羅宗人達三小敘	
3	1879년(기사)	金錫龜_送安斯文行五歸耽羅序	

안달삼과 노사 기정진의 첫 만남은 1867년이다. 이때 소백 안달삼의 나이는 30세, 노사 기정진의 나이는 70세였다. 노사가 82세에 돌아가셨으니, 이들의 만남은 약 12년간 이어졌다. 다음은 첫 번째 만나고서 안달삼을 제주로 보내면서 쓴 노사 기정진의 글로 1867년 초겨울의 작품이다.

면 첫째, 제주의 유배객이 다시 흑산도로 이배되면서 찾아갔을 수 있다. 둘째, 흑산도에서 상부에 올릴 문서를 작성할 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 수 있다. 셋째, 이도저도 아니라면 경제적인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이유이든 소백의 아버지가 당시 제주 사람들에 비해서는 넓은 건문의 소유자라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대개 들으니,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하루가 졸렬하다”는 한 구절은 경서에 나와 있으니, 正心修己에 뜻을 둔 이들은 늘 이것으로 스스로를 비취봐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편할까? 몸소한다면 편할 것이다. 왜 피곤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피곤하다. 자신은 한명이니, 자신에게 마음을 쓴다면 어찌 편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은 여럿이니, 타인에게 마음을 쓴다면 어찌 피곤하지 않겠는가? 安行五가 떠나려할 때, 正心修己의 도리를 물었다. 아! 正心修己 네 글자는 갖추어져 있으니, 그대는 돌아가 집에서 구하도록 하라. 멀리 가는데 전별선물이 없을 수 없으니, 삼가 ‘몸소하면 편하고, 타인을 위하려한다면 피곤하다’는 말로 우의의 뜻을 붙인다. 정묘년 초겨울 江上老人 奇正鎮 쓰다.²²⁾

이 글은 『蘆沙先生文集』(권19)에서도 확인된다. 기정진은 떠나는 소백에게 『書經·周官』의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하루가 졸렬하다[心逸日休, 心勞日拙]”는 구절을 가져와 “正心修己”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기정진이 “正心修己”로 그를 면려했다는 것은 안달삼이 어느 정도의 유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는 제주에서의 교육을 통해 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만남을 계기로 안달삼은 기정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소백처사유고』에 1868년 2월에 쓴 기정진의 간찰이 있는 것으로 보면, 제주에 돌아오자마자 안달삼이 기정진에게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만남은 다음 해인 1868년에 이루어진다. 다음 인용문은 노사 기정진이 안달삼을 제주로 보낼 때의 서문으로, 1868년 8월에 작성되었다.

安達三 군이 두 번이나 바다를 건너 나를 찾아왔다. 이번 일정은 종가 집에서 선조에 관한 것을 얻어 돌아가는 것인데, 그 경위는 安重燮이 이미 써 놓았다. 나는 다른 성씨여서 그 말이 경중을 따질 가치도 없지만, 달삼이 나를 父兄 모시듯 하니, 어찌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³⁾

22) 『소백처사유고』 21면: 蓋聞之, “心逸日休, 心勞日拙”二句, 著於經, 有志於正心修己者, 常以此自鏡攷焉, 可也. 如何而可以逸, 爲己則逸, 如何而不免於勞, 爲人則勞. 己一而已, 用心於己, 安得不逸, 人則千百, 用心於人, 安得不勞. 安行五將行, 問正心修己之道. 噫. “正心修己”四字, 備矣, 子歸而求之第. 遠行不可無驢. 謹拈勞逸人己四字, 以附縞紵之義. 丁卯孟冬江上老人奇正鎮書.

23) 『蘆沙先生文集』 권19, 「送安達三歸耽羅序」: 安君達三越重溟, 再及吾門. 今行也,

인용문에서 안중섭이 썼다고 한 글은 「送耽羅宗人達三小敘」로 『소백 처사유고』에도 실려 있다. 안달삼은 9~10개월만의 제주를 떠나 노사 기정진을 만났는데, 그 목적은 선조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안중섭의 서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 비록 확인하지 못했지만, 안달삼의 이런 모습은 기존 제주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유교적 영향을 깊이 받은 안달삼의 모습 역시 엿볼 수 있다.

노사 기정진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노사학맥의 인물들과 깊은 교유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奇宇蕃의 시이다.

離亭物色孰非秋 이별하는 경치 어딘들 가을이 아닐까만
 溟海無情送客舟 무정한 검푸른 바다 나그네 실은 배를 보낸다
 九仞成時更下手 높은 경지 이루었어도 다시 노력을 경주하고
 兩岐迷處慎前頭 양 갈림길 헛갈릴 때 앞 길을 조심해야지
 地從君子亦何陋 사는 곳은 군자를 따라다니니 어찌 비루할 것이며
 市上觀心還覺幽 저자거리에서 마음을 살피니 되리어 그윽해진다
 後約難期滄茫外 멀고먼 곳이라 후일을 기약하기 어려운데
 吳洲明月照思樓 남쪽 밝은 달빛 그리움 가득한 누각을 비춘다

이 시의 제목은 “지난 가을 내가 마침 집에 없었을 때에 제주의 安行五가 지나갔다. 그는 독실한 뜻과 박식하고 고아한 풍모가 있다 들었는데, 만나지 못해 뭔가 잃어버린 듯 아쉬웠었다. 올 가을 다행히 만나보았고, 수십 일간 충분히 머물러 처음에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별할 때 또 아쉬워 읊시 한 편을 따라 지어 올리지만, 말만 많고 뜻이 줄렬하니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뒷날 서로 그리워했던 정표로 삼는다. 무진년(1868) 가을 기우번 쓰다.”²⁴⁾”라고 되어 있다. 기우번은 멀리 제주로 떠나는 안달삼에 대한 염려와 조금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

得其先系於牟陽同宗家而歸，其始末，安友重變既序之矣。吾是異姓，其言雖不足爲輕重，達三之視吾，不後於門父兄，豈可無一言於此歸乎？

24) 『소백처사유고』 44면: 去年冬，余適不家時，耽羅安文行五氏，過去歸，而聞其篤志博雅，缺然若有所失。今年秋，幸而相見，洽數旬之游宿，願始矣夫。臨別又悵然，謹步一律以呈，語多意縮，詩乎哉？聊爲後日相思之資。戊辰中秋奇寓蕃書。

을 담백 실었다.

이 시는 “秋-舟-頭-幽-樓”을 운자로 사용했는데, 운통은 평성 尤韻이다. 이 작품 외에도 『소백처사유고』에서 이 운자를 사용한 시가 6편이 확인된다.²⁵⁾ 같은 운자를 썼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창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시의 내용도 모두 안달삼을 제주로 보내면서 쓴 시이다. 기우만은 음력 8월3일로 기록했는데, 이때 이들이 모여 시를 지어 안달삼을 제주로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送詩를 받은 인물은 안달삼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 제주에 돌아와서 안달삼은 기정진 문하의 여러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했는데, 편지와 함께 글을 보냈다. 이런 사실은 『소백처사유고』에 실린 기정진·기우번·기량연의 간찰에서 확인된다.²⁶⁾ 문집상으로 판단할 때, 안달삼은 이때부터 노사 기정진 문하의 일원으로 활발한 교유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2년 후인 1870년에는 안달삼의 부친인 안중수가 죽었는데, 이때에도 노사문하와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1870~1872년에 걸친 간찰이나 시에서는 모두 喪事를 당한 안달삼을 위로하고 있다.

세 번째 만남은 1879년에 있었다. 이때는 金錫龜가 「送安斯文行五歸耽羅序」를 썼다. 이 서문을 보면 안달삼이 아들인 안병택과 동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기정진은 자신의 제자인 大谷 金錫龜(1835~1885)보다 안병택이 나을 것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전해진다. 안병택의 제자인 김균배의 『근재북학일기』에도 안병택이 기정진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를 말한다.²⁸⁾ 이해 겨울 기정진은 澹對軒에서 운명을 달리했으니, 안병택은 기정진의 거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번의 만남 외에도 『노사선생문집』에 「안중수묘표」와 「소백기」

25) 6편의 시는 다음과 같다. 贈別安斯文行五(梁圭煥); 行五詞伯將發拙構一律謹呈(許煦); 奉別安斯文行五(朱陽鴻); 行五將歸謹呈一律 戊辰8月初5日(奇宇萬); 贈別安斯文行五, (奇○衍 德初); 行五文友將發謹贈拙律(許檀).

26) 『소백처사유고』 2면; 7면; 17면.

27) 『소백처사유고』 37면.

28) 『근재북학일기』 138면.

가 있는 것으로 보면, 몇 번 더 제주 바다를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 기정진이 죽었을 때나 탈상했을 때도 왕래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제주에 살던 안달삼은 기정진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오랫동안 스승의 옆에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다. 때문에 주로 간찰을 통해 본인이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했고, 이는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다. 다음은 안달삼이 기사 노정진에게 보내고 확인받은 문답록의 일부이다.

소자는 많은 병의 뿌리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세 가지는 內傷·外感·中鬱입니다. 도리를 기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배우기를 원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안정되지 못하여, 잠시 간직하고 있다가도 저도 모르게 놓아버리니, 이것은 眞元이 안으로 상해서 이룬 것입니다. 비루한 곳에서 태어나고, 비루한 곳에서 자라,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은 어그러지고 더러운 행동과 말 이어서, 이에 급속하게 세속에 끌려 젖어들었습니다. 淫風과 怪雨같은 것이 왕왕 독을 뿜어대어 저도 모르게 깊이 숭상하였습니다. 책을 읽어도 구절마다 끊어 읽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이치를 궁구하여도 어둡고 조급한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답답해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나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병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²⁹⁾

『소백처사유고』에서 확인되는 노사 기정진과의 문답은 총 10편이 전한다. 『노사선생문집』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주목할 것은 『노사선생문집』에는 답만 실려 있지만, 『소백처사유고』에는 問答 모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인용문에서 안달삼은 자신이 지닌 “內傷·外感·中鬱”로 인해 고질병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학문적 상황을 병에 비유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며, 안달

29) 『소백처사유고』 29면: 問. 小子病根多端, 其最有三曰“內傷也·外感也·中鬱也.” 非不悅道也, 非不願學也, 而中心做主不定, 乍存而不覺旋放, 是眞元內傷之所致也. 生於鄙陋, 長於鄙陋, 日所聞見, 無非悖行癡說, 則駸駸然入於俗累, 如淫風怪雨, 往往射毒, 不覺所崇之深也. 讀書, 有章句句讀之疑; 窮理, 有昏味躁急之蔽, 是中鬱所致也. 舍今不治, 必爲痼疾, 伏冀對症, 投劑焉.

삼이 느끼고 있던 당시 제주도 학술상황이나 무속을 숭상했던 당시 제주사회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정진은 이것은 보통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병통이라고 지적하면서, 『中庸』의 ‘尊德性’과 ‘道問學’의 구절로 스스로를 점검한다면, 안달삼이 가지고 있는 병이 저절로 나올 것³⁰⁾이라고 답해준다. 기정진은 안달삼의 특수한 경우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전개하여 처방을 내리고, 제자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다.

이밖에 안달삼이 기정진에게 확인받은 사항을 다양하다. 四端七情에 관한 질문, 心에 관한 질문, 陰陽에 관한 질문, 井田制·得人·賞罰에 관한 질문 등등이 그렇다. 이런 문목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라는 확실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안달삼과 같이 문목이 전해지는 문헌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상으로 성리설이나 경세론에 관련해서 차룩한 경우는 보이지만,³¹⁾ 안달삼처럼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리하고 문목을 만든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학술사에서 있어, 형식과 내용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

IV. 소백 안달삼과 면암 최익현

소백 안달삼과 화서학과의 학자인 면암 최익현과의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면암 최익현은 1873년 11월에 호조참판 사직소를 올리면서 5條의 大義를 아뢰었는데, 이 상소로 인해 濟州에 圍籬安置의 명을 받는다. 그러다 1875년 4월에 해배되었다. 다음은 면암 최익현이 제주에서 해배된 후 노사 기정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30) 『蘆沙先生文集』 권13, 「答安行五問目」, : 病最有三之說, 借身病爲喻問善. 雖然, 以吾觀之, 此皆恒人通病, 與謝上蔡着出矜字罪過不同矣. 治此, 亦當服恒人通藥. 今且就『中庸』尊德性·道問學, 一句兩節, 細細思量德性是何物, 如何而可謂之尊; 問學是何事, 如何而不失其道. 若歷歷分明, 卽行屈首從事. 每日不管餘事, 只此兩事, 常自點檢, 兩事有一闕否? 待得積累得力時, 些病漸漸消縮, 亦將有切己之實病現前. 與今日所見, 大段不同.

31) 이에 대해서는 김새미오의 연구(2010)가 참조된다.

오직 士友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 이번의 소식을 물으면, 그때마다 큰소리로 “내가 濟州에 있을 때는 漢拏山을 보았고, 長城을 방문하여 奇丈席을 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묻던 자가 움찔 놀랐고, 계속하여 들으려고 하기에, 섬에 있을 때에 安達三이 가지고 있는 노사선생 門下의 문헌인 疏章·序·記·理氣說 약간 편을 옮겨 등사한 것을 내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의를 들어 보니, 모두들 “정밀하게 이치를 보고 간절하게 일을 논하였으니 참으로 고금에 뛰어난 호걸이며, 세상을 건질 만한 큰 선비이다. 조예가 깊어 논설의 깊은 뜻을 자득하고 세속의 의론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서로서로 둘러가며 등사하여 강습의 자료로 삼고, 또한 조만간에 폐백을 가지고 우러러 사모하여 뵈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소생이 지난날에 뵈기를 청한 것이 처음부터 의리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천 리의 길이 헛걸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람하기가 어찌 웅기그릇에 좋은 술을 붓고, 나무 인형에 곤룡포와 면류관을 입힌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³²⁾

편지는 1875년 9월14일에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서 면암 최익현은 안달삼이 등사해서 가지고 있던 노사 기정진의 글을 보고 기정진을 만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익현이 해배된 때는 1875년 4월이다. 『소백처사유고』를 보면 안달삼이 1874년 6월에 기정진에게 받은 간찰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자면 안달삼이 노사 기정진과 면암 최익현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874년 봄에 지은 기우만의 「小栢說」³³⁾이 전하는 것을 보면 안달삼이 면암을 모시고 직접 찾아 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제반사항은 이는 노사 기정진과 면암 최익현과의 교류가 소백 안달삼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사람 간의 교류의 시작점에 안달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안달

32) 『勉菴先生文集』 권6, 「上奇蘆沙正鎮_乙亥九月十四日」: 惟士友間, 好不知惡者, 或詰之以所得, 輒大言曰, 吾在濟州見漢拏, 過長城謁奇丈席. 於是問者, 竦然欲繼有所聞, 亟以島中時, 移瞻安達三所藏門下文字疏章·序·記·理氣說若干篇者出而示之. 竊聽於其尙論之餘緒, 則皆曰見理之精, 論事之切, 眞振古英豪, 命世大儒, 其非深造自得於言意之表, 而不拘牽於世俗異同之論. 何以如此. 並互相傳寫, 以資講習, 亦將有早晚齋贊, 以遂景仰之願者. 以此觀之, 小生之曩日請謁, 未始害於義也, 而亦免作數千里虛行. 其爲冒濫, 奚啻瓦缶之注黃流, 木偶之加袞冕. 해석은 고전번역원의 것을 참조하였다.

33) 『소백처사유고』 35면. 『松沙集』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익현은 안달삼과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다음은 『소백처사유고』에 실린 최익현 편지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유배 3년 동안 마음을 모아 서로 살피주었으니, 역시 기이한 인연[奇緣]입니다. 돌아온 후 여러 차례 신경써주신 것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중략… 아드님의 공부는 향상되고 있는지요? 아래로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 더 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밖에 근심거리가 있긴 해도 모두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노사선생의 안부는 근래에 어떠한지요? 짧은 시간 봐서 비록 만나고픈 제 마음은 채웠지만, 물러난 후 아쉽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하니, 이것 역시 떳떳한 마음이 촉발한 것인지요. 禹卿이 급히 돌아간다고 하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망합니다.³⁴⁾

『소백처사유고』에는 면암 최익현이 보낸 간찰 3편이 수록되어 있고, 『면암선생문집』에는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간찰은 1875년 7월 편지로, 최익현이 해배되고 돌아가자마자 안달삼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다. 면암 최익현은 유배기간 동안 안달삼과의 만남을 ‘기이한 인연[奇緣]’으로 정리하고 있다. 절해고도 제주에 와서 안달삼을 만난 것도 쉽지 않은 인연이고, 또 그를 통해 노사 기정진을 만난 것 역시 생각치도 못한 만남이었다. 또 그 만남에서 서로간의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면암의 말대로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 만하다. 또 최익현은 해배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안달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고, 동시에 노사 기정진의 안부를 함께 묻고 있다.

이 간찰에는 안달삼의 아들과 禹卿이란 인물이 나온다. 먼저 “禹卿이 급히 돌아간다”는 구절로 보면, 禹卿은 제주도 인물로 보이며, 이는 佑卿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佑卿은 구한말 제주 한학자인 金義正(1844~1925)의 字인데, 면암이 제주유배 때 그를 따라 배운 인물이다. 본관은 김해이고 조천읍 조천리 출신이다. 안달삼과 함께 매계 이한우를

34) 『소백처사유고』 11면 : 謫室三載, 會心相款, 亦是奇緣. 歸後頻注, 何可忘也? …중략… 玉允勤課, 向上未損, 下離違際, 得此團聚, 其喜無對, 外他有憂, 都不足恤耳. 下沙問安, 近更何若? 震然承顏, 遂雖鄙忱, 退後感然, 殆若有失, 此亦秉彝之所發者耶? 禹卿遽有告歸, 愴不可言.

배웠던 동학관계의 인물이었다. 즉 김희정은 제주에서 최익현을 통해 화서학과를 따랐던 인물이었다.

안달삼의 아들은 전술했듯 부해 안병택을 말한다. 부해 안병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인 안달삼을 이어 노사학과의 일원으로 성장해간다. 둘째, 부해 안병택이 노사학맥에서 교학활동을 하면서, 제주에서 그를 찾아와 배운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 노사학맥이 전달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노사학과내의 교학활동을 담당하면서 화서학과와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 세 가지 역할은 모두 부친인 안달삼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인적교류의 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이 두 학과 간에 어떤 점에서 호감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논의로 판단해보자면, 안달삼의 등사했던 “疏章·序·記·理氣說”의 문장에서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현재 안달삼이 필사하여 소장했던 책은 확인할 수 없지만, 疏章·理氣說등의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理氣說인 경우 두 학과의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理를 중심으로 철학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해석 방향에서 분명한 차이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노사 기정진과 화서 이항로의 疏章에는 모두 위정척사 사상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둘은 통상반대와 함께 척화주전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사상으로 일제침략기와 강점기 때 역시 두 학과는 항일의 병을 일으켰고, 서로간의 교감도 있었다. 당시 寒洲 李震相(1818-1886), 艮齋 田愚(1841-1922)의 경우 역시 척화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사·화서학과처럼 밀접하게 지낸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심지어 화서학과 학자인 金平黈(1819-1891)은 “艮齋는 죽기가 무서워 의병을 일으키지 못했고, 화가 미칠까 두려워 외세를 배척하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정리하자면 이들 노사·화서, 이 두 학과는 理를 중심으로 한 사유체계,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위정척사사상, 후에 이어지는 의병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자세한 방향이나 행동양식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V. 결론을 대신하며

노사 기정진은 노사학맥의 종장이고, 면암 최익현은 화서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였다. 이 두 학파의 인물들이 서로 우호적으로 만나 학파간에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만남의 시작된 공간이 제주도였고, 제주도 인물이었던 소백 안달삼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안달삼은 제주도 조천출신이었다. 조천은 당시 제주의 대표적인 포구여서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그의 집안 분위기 역시 본토의 정보에 밝았고, 유가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소백처사유고』를 점검하면서, 노사 기정진과 면암 최익현과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소백 안달삼의 학문적 위치를 추적하였다.

노사 기정진과 안달삼은 문헌상으로는 모두 3차례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노사 주변 문인과 제자들을 만나 교유하였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아들인 부해 안병택이 동행하여 노사 기정진을 만났다. 이렇게 스승을 찾아 바다를 건너는 경우는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었다.

안달삼은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 유배 시에 처음 만났다. 최익현은 당시 안달삼이 가지고 있던 기정진의 글을 보고, 이에 공감을 가졌다. 이에 제주도 해배 후 돌아가는 길에 기정진을 찾아가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노사학파와 화서학파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후 교유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두 학파간의 교류의 시작점에 안달삼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학술상의 좌표를 잡을 수 있었다. 또한 그 공간이 제주였다는 것 역시 매우 독특하면서도 유의미한 성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파는 안달삼의 아들인 안병택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제고할 수 있었다.

본고의 몇 가지 한계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파간의 교류의

시작점에 멈추었다는 점이다. 그 전개과정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학파는 항일정신을 표방했는데, 학파별로 그 층위의 차별점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이는 두 학파간의 철학적 관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학술사에 있어 이후의 전개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학술사인 경우 계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小栢處士遺稿』, 문중소장.

안병택(2002), 『부해문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_____, 『부해문집(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정진, 『노사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310.

기우만, 『송사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345~346.

최익현, 『면암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325~326.

김석익(1990), 『심재집(1~2)』, 제주문화. 1990.

윤정복, 『重軒遺稿』.

曹毅坤 동오선생문집. 역대문집총서514.

『濟州牧按覈狀啓牘錄』, 고려대학교.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_____,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_____,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문화원, 2005.

변경봉 저, 허남춘 외 역, 『변경봉 문집』, 보고서, 2009.

안병택 저, 오문복 역, 『부해문집1~4』, 제주문화원, 2008~2015.

김석익 저, 오문복 외 역, 『제주속의 탐라』, 보고서, 2011.

김균배 저, 오문복역, 『근재복학일기』, 북제주문화원, 2005.

김희정 저, 백규상 역, 『해은문집』, 제주문화원, 2015.

김동윤, 송산 김명식의 생애와 문학, 한국문학논총(63), 한국문학회, 2013, pp.331~362.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11), 영주어문학회, 2007, pp.51~74.

_____,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20), 영주어문학회, 2010, pp.93~118.

_____, 구한말 제주 문인 부해 안병택의 삶과 교섭, 한국한문학회연구(53), 한국한문학회, 2014, pp.249~274.

_____, 제주유배시사 橘會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57), 한국한문학회, 2015,

pp.477~499.

_____, 浮海 安秉宅의 문학과 한시 소고, 영주어문(29), 영주어문학회, 2015, pp.137~162.

_____, 心齋 金錫翼의 삶과 저술에 대한 일고, 영주어문(31), 영주어문학회, 2015, pp.203~229.

김치완, 梅溪 李漢雨의 ‘낮선 공간’으로서 瀛洲, 역사민속학, 한국역사민속학회 (39), 2012, pp.73~100.

부영근, 한말의 제주문인 부해 안병택의 문집고찰, 제주문학(52), 제주문학회, 2010, pp.362~384.

허호준, 일제유학시기(1915-1918) 송산 김명식의 사회인식과 활동, 탐라문화(39), 탐라문화연구소, 2011, pp.375~411.

Abstract

The Academic Networks of *Sobaek An Dal-Sam* and their Implications

Kim, Sae-Mi-O

This paper looks at the academic position of Sobaek Ahn Dal-Sam (小栢 安達三), native to Jeju (1837-1886) by examining his life course and academic networks. Ahn Dal-Sam has not been known to the academia so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his life course first. He was born in Cho-Cheon in Jeju in which a port was famous as a site for diverse ranged information to flow through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of Korea. He came from the family which knows well to the information from the mainland; and he grew up in the family which is well equipped with Confucius knowledge. This is quite unusual in Jeju at that time.

Next, I examined the book of Ahn Dal-Sam, *Sobaekcheosayugo* and traced his role and standing in the relevant academic circle by focusing upon his academic networks.

For his academic networking, I focused upon his exchange with Nosa Ki Jeong-Jin and Myunam Choi Ik-Hyun. According to the book, Ahn Dal-Sam met Nosa Ki Jeong-Jin three times in his life. On the first meeting, the two were a professor and a student; and he further exchanged meetings with academics that are close to Nosa and his

* Taedong Institute of classic research.

students. For the third meeting, his father Boohae Ahn Byung-Taek came along with him in order to meet Nosa Ki Cheong-Jin in the mainland. Ahn Dal-Sam first met Myunam Choi-Ik Hyun during his exile period to Jeju. Choi Ik-Hyun came to know the writings of Ki Jeong-Jin through Ahn Dal-Sam, for which he was greatly impressed ; and later on after completing his exile term in Jeju, he made a visit to Ki Jeong-Jin himself.

By this visit, the academic exchange of the Nosa Circle and the Hwaseo Circle began; and afterwards the exchange of meetings expanded gradually. It can be said that Ahn Dal-Sam was instrumental in connecting the two academic circles and this points out his role and standing in the academia. It is also meaningful and characteristic that it is in Jeju that the interchange of the two academic circles were made.

Furthermore, the two academic circles were reproduced and expanded by Ahn Byung-Taek, the son of Ahn Dal-Sam, which also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Key words : Sobaek Ahn Dal-Sam, Sobaekcheosayugo, Boohae Ahn Byung-Taek, Nosa Ki Jeong-Jin, Myunam Choi Ik-Hyun, The Nosa Academic Circle, The Hwaseo Academic Circle.

교신 : 김새미오 031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
(E-mail: kimsaemio@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1. 13.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